

PPA 모델 분석을 통한 장소애착의 적용성 연구

양뢰* · 이시영**

*배재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과

I. 서론

인공 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화롭게 하여 도시와 관광지를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에 대한 관한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소애착의 개념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끼리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서술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소애착이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장소애착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소애착에 대하여 심리학적 기초로 시작된 기존 학자들의 장소애착 이론에 대하여 구성요인과 체계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논리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PPA 장소애착 3차원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전광역시 대동하늘 공원을 예로 하여 적용, 분석함으로써 PPA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해외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 범위가 비교적 넓고 이론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연구에서 한국은 여전히 장소 애착, 장소 정체성 및 장소 감정 등 기초 이론에만 머물러 있으며 게다가 이런 개념들은 헛갈리기 쉽고 설문조사를 실제로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내외에는 장소, 인간, 심리적 감정 과정 등 3가지 요소에 대한 연구와 보도가 적고 현재까지 단지 Scannell and Gifford(2010)만 인간-심리적 과정-장소 모델(PPP)을 제출하였다.

II. 장소애착의 연구 현황

장소(place)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Galliano and Loeffler, 1991),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연구분야의 학자들은 각기 '장소'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발전시켜 왔고, 또한 연구 요구에 따라 그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장소애착, 장소감, 장소정체성, 장소 의존성, 장소 견고함 등 "장소"와 관련되어 확정되어지지 못한 일련의 개념으로 하여 "장소애착"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상황을 수많은 학자들은 "난

잡하다(messy)"라고 비평하고 있다.

이런 혼란한 현상에 대해 Scannell *et al.*(2010) 학자들은 3차원 구조 이론을 제출하여 장소애착의 수많은 흩어진 정의에 대해 통합을 진행하였다. PPP 구조 이론은 장소애착의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포괄적이고 과학적이며, 그것은 아주 강력한 종합성을 갖추고 있어 그 분야의 관련 지식을 종합적으로 조직시킬 수 있고 게다가 과거 여러 분야의 해석도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아주 강한 포용적 인클루시브를 갖추고 있어 기존의 연구를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련 연구내용을 이 3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III. 장소애착의 PPA 모델 및 구조

윌리엄(Williams *et al.*, 1989)의 장소애착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장소애착은 사람과 장소간 감정(정서, 느낌), 인지(사상, 지식, 신앙)와 체험(행동, 행위)에 근거한 연결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을 사람과 장소간에 형성되는 감정의 선호도로서 생성되는 결과물이라고 규정한다. 장소애착 연구의 대상으로는 사람, 장소가 주대상으로 포함된다. 서로 다른 군중과 장소를 대상으로 사람과 장소간 상호 작용 과정 중의 감정, 인지와 행위 연결에 대한 관계성을 보다 강화한다. 장소 애착은 주요하게 사람과 장소의 정면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유대를 표현하기에 주요하게 사람과 선호하는 장소의 감정 유대를 연구한다. 따라서 장소애착의 PPA 구조 모델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2개 요소와 1개 순환적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사람과 장소 두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장소애착의 감정 과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감정의 형성은 인지, 행위, 체험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점차 상승하는 과정으로 최종에는 사람의 장소에 대한 견고한 선호 감정 유대를 형성하는데 즉 이것이 장소애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모델에서 장소애착은 주요하게 사람과 장소 두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장소애착의 감정 과정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과 PPP 모델은 모두 감정의 과정을 고려하였지만 모델에서는 그 과정을 단독으로 분리하여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장소 두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장소애착의 감정 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장소애착의 긍정적인 감정의 발생, 승화의 실제적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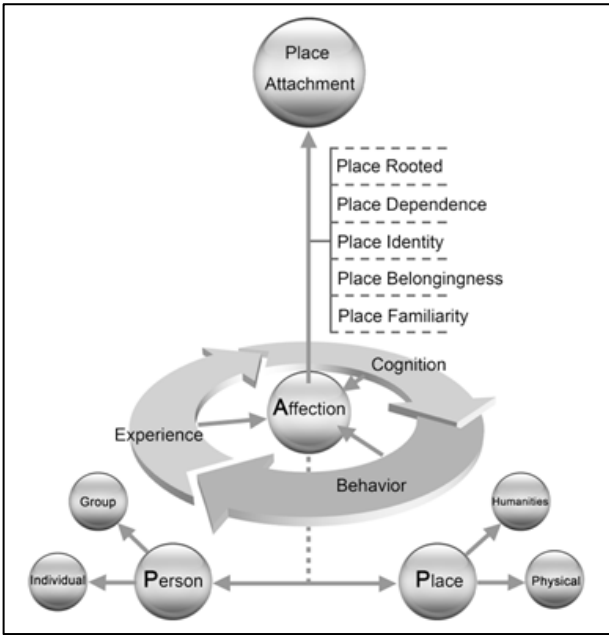


Figure 1. PPA research model

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장소애착의 2가지 요소, 첫째는 군중: 사람은 개인과 군중 2가지 수준으로부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군중의 서로 다른 특징에 따라 각종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장소의 시간이 다름에 따라 주민, 이주민, 관광객 등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연령의 다름에 따라 어린이, 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직업의 다름에 따라 회사원, 자영업, 농업(임업), 가정주부, 학생 등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장소: 장소의 서로 다른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장소의 규모(scale of place)란 개체가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서 멀고 가까움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보통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집(거주 주택), 아파트, 주변 이웃, 지역사회, 소재 구, 시, 도, 국가, 대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소애착 연구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를 출발점으로 하여 장소 자체의 독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 심리 방면의 수위를 구현해야 한다. 장소애착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 인지와 행위 3가지 방면의 집합이라 간주할 수 있다(Irwin and Setha, 1992). 장소애착의 감정 상승 정도는 익숙함, 귀속감, 정체성, 의존성, 견고함 등 5가지 단계로 측정할 수 있다. 장소의

존성과 장소정체성의 기초위에서는 장소애착에 대해 섬세하게 구분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장소애착에는 장소 익숙함, 장소 귀속감,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장소 견고함 등 5가지 차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게다가 피라미드형의 강도와 특성을 형성하여야 한다.

IV. 결론

과거 연구에서 장소애착은 주요하게 장소 정체성과 장소애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장소애착에 대한 감정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장소애착에 대한 정의 및 차원 구분이 혼란한 현황에 대해 본 이론적 연구를 통해 심리학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PPP 3차원 구조 이론의 기초위에서 PPA 연구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장소애착과 두 요소 및 1개 감정 순환으로 구성되었고, 두 요소의 구성 모델과 감정 순환 모델로 합성되었다. 두 요소의 구성 모델은 사람과 장소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장소애착의 감정 과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감정의 형성은 감정 순환 모델로 해석하였는데 그것은 인지, 행위, 체험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점차 상승하는 과정으로 최종에는 사람이 장소에 대한 튼튼한 감정 유대를 형성하는데 즉, 이것이 장소애착이다.

참고문헌

1. Hammitt, W. E. and D. N. Cole(1998) Wild Land Recreation: Ecology and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pp.40-45.
2. Altman, Irwin and Setha M. Low(1992) Place Attachment, New York, pp.1-2.
3.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pp. 126-156.
4. Scannell, L. and R. Gifford(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 1-10.
5. Tuan, Y. F.(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p.260.
6. Tuan, Y. F.(1975) Place: An experien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65(2): 151-165.
7. Williams, D. R. and J. W. Roggenbuck(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Leisure Research Symposium, Arlington, VA :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pp.32-34.